교계출판 '기획서'로 불황 극복

'고승시리즈' 시장 개척 교두보…근대사 정리도

전문 필자 발굴등 '저작권료 암초 타개' 골몰

저작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4월 총선등의 여파, 저작권료 부담에 따른 필자확보의 어려움 및 독자의 감소,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 출판계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못하다. 그러나 교계 출판사들은 이같은 비관적인 상황에도 불구, '기획출판'이란 전략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민족사의 〈한국의 고승(전30권)〉 시리즈와 밀알출판사의 〈역대고승평전(전26권)〉, 우리출판사의 〈고승의 발자취(전20권)〉, 언어문화사의 〈고승열전〉, 불교시대사의 〈세계고승법문집〉 시리즈 등 고승관련 기획출판물이다.

민족사는 〈한국의 고승〉 시리즈를 통해 고구려 승랑스님으로부터 한암스님에 이르기까지 32명의 한국 고승들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한다.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상까지도 충분한 문헌고증을 통해 분석할 이 기획물은 일반인을 위한 대중 교양서와 1차 학술자료의 성격도 갖게 된다. 특히 관련사진과 지도, 기존의 연구현황, 연표 등을 함께 실어 입체감있는 교양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97년 후반기에 10여권이 동시에 첫선을 보인다.

현대고승법어총서를 낸 바 있는 밀알출판사는 올해 〈역대고승평전〉 시리즈 26권 중 10여권을 낼 예정이다. 중고생 이상의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소설형식으로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우리출판사도 한글세대를 겨냥한 소설형식의 〈고승의 발자취〉 20권 중 10여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BBS 인기프로인 현대 〈고승열전〉 시리즈 12권째를 내고 있는 언어문화사도 이달내에 운허스님 편을 내고 경허스님편도 준비하고 있다. 티벳 달라이라마와 일본 데시마루선사의 법문집을 펴낸 불교시대사도 곧 미얀마 티틸라스님의 〈그대 왜 아직도 미망에서 헤매는가〉를 내고 스리랑카, 태국 등의 고승법문집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학술서의 경우 민족사의 한국불교근대사 관련 기획물이 돋보인다. 민족사는 오는 5~6월이 〈조선불교〉 〈조선월보〉 등 불교잡지와 정부기록보존소의 문건, 정화관련 자료 등을 담은 〈한국근대불교학술자료총서〉 30여권을 출간, 근대불교사 연구자료의 95% 이상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7월에는 김광식 독립운동사 책임연구원의 논문집 〈한국근대불교사〉 연구서를 발간, 본격적인 근대불교사 연구서를 낼 예정이다. 〈존재론·시간론〉과 〈인식론·논리학〉 등 불교학세미나 시리즈를 낸 불교시대사는 곧 〈인간론·심리학〉 〈종교론·진리론〉 〈교육학·윤리학〉 〈문학론·예술론〉 등을 잇달아 낼 예정이다.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를 내면서 기획출판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원사는 올해 〈철불〉과 〈불교공예〉, 사찰시리즈 〈금산사〉 〈화엄사〉 〈마곡사〉등을 출간, 올해안에 '빛깔있는 책' 시리즈 2백권을 채울 예정이다.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기획과 전문필자의 발굴, 장기적인 안목의 기획출판이 불황을 이겨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참신하고 장기적인 기획출판으로 불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사진은 교계의 대표적인 기획출판물들

문화 유적 안내서 4권출간

4권의 문화유적 안내서가 나란히 출간됐다. 백제 절터 답사기인 〈한국의 폐사〉(한국문화사 刊)와 백제문화권 안내서 〈백제의 숨결〉(한국관광공사 刊), 〈문화의 산길 들길〉(화산문화 刊), 〈국토는 향기롭다〉(미래사 刊)등이 그것.

한국의 폐사 — 19개 백제절터 연구조사
백제의 숨결 — 백제문화권 관광 안내서
문화의 산길들길 — 유적발굴에 얽힌 이야기
국토는 향기롭다 — 시어로 순례하는 전통미

〈한국의 폐사〉와 〈백제의 숨결〉은 모두 백제지역의 문화유적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중 백제권역의 절터만을 골라 답사한 〈한국의 폐사〉는 충청일보 이재준 편집국장이 20여년에 걸친 폐사지 답사의 연구결과를 모은 책이다. 〈백제의 숨결〉은 고대 일본문화에 영향을 끼친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한일간의 역사·문화적 연관성을 이용한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발간된 책자.

〈문화의 산길 들길〉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무국장이자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있는 정재훈씨의 문화유적 이야기다.

이형권시인이 지은 〈국토는 향기롭다〉는 국토의 사연이나 문화유산의 이모저모를 아름다운 시어로 가늠하고 있다. 1부 '국토는 향기롭다'와 2부 '역사의 숨결이 깃든 곳'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가야인이 세운 분국 '확인'

고준환씨 '가야를 알면 일본의…' 일어판 나와

삼국시대보다는 가야를 포함한 4국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설을 담아 92년 〈하나되는 한국사〉를 베스트셀러에 올려 놓았던 고준환교수(경기대)가 이에 가야사를 더욱 보완한 〈가야를 알면 일본의 고대사를 안다〉를 최근 일본어판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일본이 제기했던 '임나일본부설'이 허위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은 가야사람에 의해 세워진 분국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가야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했던 4국시대에 일본을 통치했던 신공황후는 가야 김수로왕의 딸 묘견공주로 이 묘견공주가 자신의 동생 선견왕자등 3천명을 이끌고 일본에 건너갔으며, 이것은 일본 구마모토縣 야스시로市의 김수로왕을 신주(神主)로 모시고 있는 묘견신궁에서도 확인됐다고 이 책은 적고 있다.

화제의 책

'눈물고인 가슴에…' 미영순 지음

30년 가까이 불완전한 시력의 암흑 속에 살면서 국내 몇 안되는 중국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미영순박사(북방연구소 연구위원)가 자전적 에세이를 펴냈다.

열여덟살에 갑작스런 실명으로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굳건한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며 마침내 중국문제 전문가로 다시 태어난 미영순박사는 한국의 헬렌켈러로 불리는 그의 삶과 열정을 감동적인 에세이로 엮어냈다.

고1때 대각사 룸비니학생회와의 인연으로 불교에 입문하게 된 그녀는 30년 가까이 불경을 손에서 떼지 않는 독실한 불자이다.

불심으로 장애이긴 삶과 열정 그려

불교신행관련 글을 모은 '보살이 열반에 들기를 거부한 뜻은' 편에서는 '해탈로부터 자유롭기를' 등 19편의 글을 통해 보살이 되고싶은 서원을 노래했다.

〈고려원, 7천원〉

"日 8세기 유물 통일신라 관련 조명"

최재석씨 '정창원 소장품과 통일신라' 발간

지속적으로 한일고대사를 연구 해오고 있는 최재석씨(고려대 명예교수)가 통일신라와 일본관계 연구서인 〈정창원 소장품과 통일신라〉를 펴냈다.

일본 나라(奈良)의 한 절인 도다이지(東大寺)의 창고 정창원(正倉院) 소장유물의 제작국이 어느 나라인가에 촛점을 둔 저서로서 2백여점의 사진자료도 싣고 있다. 저자는 그 제작국을 확인하는데 8세기 당시 일본의 미술공예품 제작능력, 공예품의 재료, 항해기술, 불교의식구(儀式具)등 신라문양과의 비교 등등 15종의 시각에서 통일신라가 제작국임을 밝히고 있다. 〈일지사, 2만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타	효림
2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3	신통	혜운	청마
4	방한암선사	김호성	민족사
5	소설 등신불	석용산	문학수첩
6	금강경 이야기	법륜	정토출판
7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이청	둥지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화
9	한글 아함경	고익진	동대출판부
10	티벳 사자의 서	파드마 삼바바	정신세계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잡보장경'

해방전 대학의 종교학 커리큘럼은 불교경전의 주석을 가르치는 과목이 60%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대 종교과에서 유학했던 나는 이 커리큘럼을 통해 불교를 좀 더 깊이있게 체험하는 계기를 얻었다.

이때 인연이 닿은 경전이 〈잡보장경(雜寶藏經)〉이다. '부처님의 여러가지 교리를 담은 경'이란 뜻을 지닌 이 경은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5세기말에 서역출신의 학승 길가야(吉迦夜)가 번역했다고 전해진다.

이 경은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징계하라는 불교의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설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부처님이 전생에는 중생들의 갖가지 고통과 불행을 구제하였고 현생에서는 사람들을 교화하여 선행을 닦게 함으로써 모두 다 하늘세상에 태어나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 상
〈시인·예술원 회원〉

권선징악 내용 담긴 설화집

무주상 보시 큰 의미 가르쳐

특히 이 경에서 감명을 받은 부분은 바로 제6권에 나오는 '재물 없이 보시를 베풀라'는 7가지 무재출시(無財出施)의 가르침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재물을 손해 봄이 없이 큰 보람을 얻는 시주법에 대해 설교한 내용이다.

그것은 첫째로 언제나 부모와 스승, 비구와 바라문들 등 사람들을 대할 때 밝고 정다운 눈으로 대해 주는 것(眼施)이고, 둘째 언제나 그들을 부드러운 얼굴로 화평하게 대해 주는 것(顔施)이며, 셋째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좋은 말로 대해주는 것(言詞施)이며, 넷째로 공경하고 예절바르게 대해주는 것(身施)이며, 다섯째로 너그럽고 따뜻한 착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며, 여섯째로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베풀어 주는 것(床座施)이며, 일곱째로 방이나 집 등의 쉴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房舍施) 등이다.

이 내용을 보면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 남을 돕지 못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모두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결과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베품은 어떤 소유물이나 능력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지닌 인정(人情)을 베풀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상(相)을 내지 말고 베풀라'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한 말씀이다.

흔히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베풀기 어렵고 베푼 것이 많으면 상을 내지 않기가 어렵기에 부처님이 이러한 쉬우면서도 어려운 법을 설하셨나 보다.

성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걸 이웃에게 베풀라고 했지, 특수한 사람만이 가진 걸 주라고 하진 않았다. 인간의 원초적인 인정의 발휘 이외에 딴 것이 아닌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이웃 사랑, 공자님의 인(仁)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모두 인간의 본성이 지닌 아름다운 인정을 진심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잡보장경〉은 실천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쉬운 무주상보시의 방법을 내게 가르쳐 준 소중한 경이다.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걷히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 4,5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